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6년 5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30번(예수 부활하셨네)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 20,1~8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성모의 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합시다.(5월 5일 금요일)
 - 야외미사에 모두 참석하셔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듭시다.(5월 14일)
 -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245번(맑은 하늘 오월은)

MEMO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첫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Deus Caritas Est)

제2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랑의 실천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 사랑은 모든 개별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사랑을 반영하여야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깨닫는 것은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왔으며, 곧이어 이러한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명백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로서 ‘부제직’ 이 교회의 기본 조직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총체적으로 실천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봉사입니다.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교회의 근본 측면의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내적 본성은 세 가지 의무로 표현됩니다. 곧,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선포-증언), 성사를 거행하며(예배), 사랑을 실천하는(봉사) 일입니다. 이 의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들어 교회의 자선 활동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자선 활동은 정의에 위배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자선 활동을 통하여 교회는 기존의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하여 그러한 불의를 어느 정도 참을만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잠재적 변화와 혁명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는 세상 혁명을 통하여, 또 그러한 혁명을 준비함으로써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어져버렸습니다. 교도권은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Rerum novarum*, 1891)를 시작으로 요한 바오로 2세의 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 1981), 「사회적 관심」 (*Sollicitudo rei socialis*, 1987), 「백주년」 (*Centesimus annus*, 1991)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고찰해 왔고,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매우 정교한 사회 교리를 발전시켜 왔으며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도 매우 타당한 지침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와 국가 안에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는 일은 정치의 근본 의무이므로 교회의 직접적인 임무는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는 국가에 대한 권력을 교회에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성을 순화하고 조명하여 양심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의의 참된 요구들을 파악하고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국법이라고 해도 사랑의 봉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 국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해 주려는 국가는 관료주의의 도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통 받는 인간, 곧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인격적인 사랑의 봉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도 중요시하지 않게 됩니다.

빈 무덤

- 요한 20,1~10 -

요한복음서는 빈 무덤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견주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20장 첫 대목에서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제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알려주고 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형태로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시신이 도둑맞았을까봐 걱정이 되어 베드로와 사랑받던 제자에게 달려와서 비어 있는 무덤에 관해 알려준다.

그들은 직접 달려가서 보고는 마리아의 결론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수의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특히 머리를 싸맷던 수건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던 것이다. 도굴꾼들이라면 그런 수고를 할 시간도,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이 대목은 이렇게 예수의 시신이 도둑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또한 **사랑받던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서 먼저 그곳에 도착하지만 기다렸다가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행위가 이 제자를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게 한다.

그의 사랑은 뜨겁고 그의 신앙은 베드로보다 더 깊지만 주님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에게 양보함으로써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은 목격하였지만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굳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텅 빈 무덤만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어두운 마음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빛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

1. 사랑받던 제자처럼 우리 공동체나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고 양보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2. 주님과 나를 가로 막고 있는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

장미빛 향기로운 다가오시다가
짙레꽃 아픈으로
저희를 바라다보시는 어머니.

어머니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그 눈길엔 연민 가득한 그 눈길엔
저희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약의 유혹에 빠질세라 숲죽이시는 안타까운
푸른 승풍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벳 드린 축복의 인사 들으시며
부르신 그 노래

봄꽃이었던 그 아늑다운 노래가
유다 산골에 메아리칠 때
산새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나무와 꽃들이 춤추었습니다.

타오르던 한희의 노래를 묵묵히 가슴에 담고
침묵으로 살아오신 나날들

어머니!

이제 다시 그 영정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랫소리 바람에 실려
저희 곁가에 들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어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부르는 그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복소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 류해욱 신부 -

